

일본의 청각장애아를 둔 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

카이 사라사(甲斐更紗)

리츠메이칸대학 글로벌 COE생존학 거점 박사후 연구원

(일본의 현황)

- 1980년대 이전까지 청각장애교육은 청각구화법이 중심이었다.
- 1993년 문부성이 「청각장애아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에 관한 조사연구협력자회 보고서」를 발표, 농학교의 중등부/고등부부터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수화를 도입할 것이 제안되었다.
- 1996년 키무라 하루미 · 이찌다 야스히로(木村晴美 · 市田泰弘)가 「농문화선언」(우리들은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수화라는 하나의 언어를 가진 소수자 라는 선언)을 발표하였다. → **들을 수 없는 것을 병리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아닌 문화적 관점에서 파악한다는 선언**
- 부모는 「아동에게 수화는 자연스러운가」 「수화를 사용하는 편이 나은가」에 대해 60%가 긍정적이었다. 부모가 알고 싶어 하는 것으로 「수화」등이 거론되었다. (토지마 · 요카이치(戸嶋 · 四日市), 2001) →
그러나 **행정이 부모가 수화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문제**
- 2008년에는 일본 유일의 수화와 일본어 이중언어 · 이중문화 교육 (Bilingual-bicultural education)을 실시하는 학교(메이세이학원 明晴学園 : Meisei Gakuen School for the Deaf)가 개교.
- 1994년 인공내이수술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이 이루어졌으며, 아동에 대한 적용이 확대되었다.
- 2000년부터 각 도도부현에 신생아 청각 선별 사업이 실시되기 시작되었으며, 청각장애의 발견이 눈에 띄게 조기화되었다.
- 그러나 청각장애 발견 후의 지원은 여전히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음. 보호자가 고립되는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쇼지(庄司), 2004)
- 아직 양육에 익숙하지 않은 어머니가 유아를 안고 청각장애 확정 진단을 받기 위해 몇 번이나 병원을 방문할 수 밖에 없어, 아동과의 관계 등 매우 곤란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키타노(北野),2007).
- 부모에 대한 지원은 청각활용이 대부분이며, 수화에 관한 지원은 없다
-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모자 관계의 왜곡, 정서적 교류의 부족이 모자 관계 형성을 지연시키는 경우도 있다 (호시노(星野), 2010).

(문제와 목적)

들리는 부모에 있어서

「들리지 않는 세계」는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Leigh & Stinson,1991 etc)

- 부모자녀관계 형성에 있어서 왜곡의 우려 (카와사키(河崎), 2003, 호시노(星野), 2010 etc)
- 일본에서 부모에 대한 심리적 지원 대응은 지연되고 있다 (카와사키(河崎), 2003 etc)

- ① 들리는 어머니의 심리 상태
- ② 들리는 어머니의 심리임상적 지원에 대한 요구 } ①, ②를 밝힌다

(방법)

- ① 실시기간 : 2010년 8월말~12월말
- ② 실시방법 : 반구조화 면담. 구화 · 필담 · 수화 등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 면담.
- ③ 대상자 : 들리지 않는 아동 · 성인 (10대부터 30대, 신체장애인수첩 2급, 3급, 4급 소지자)을 둔 들리는 어머니 9명

(결과)

어머니와의 면담 내용을 오픈 코딩(Open Coding) 분석한 결과, 이하 ①부터③이 밝혀졌다.

① 들리지 않는 아동의 발달단계마다, 어머니의 다양한 감정이 나타난다.

② 들리지 않는 아동과의 관계를 통해 경험하는 부모의 다양한 일련의 감정은 <모색→구축과 안정→갈등>을 반복하고 있다.

③ 들리지 않는 아동의 발달단계마다 「들리지 않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이 번갈아 발생하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어머니에 대한 수화에 의한 정서적 교류를 통한 단계적 지원이 필요.